

# 1천만 관광객·미래 먹거리 초석...목포시 위상 높아졌다

## 김종식 시장 민선 7기 1년 성과와 계획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를 활용해 목포만의 4대 전략상품 마케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목포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강화돼 목포시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1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 미래 30년 먹거리의 초석을 놓은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김 시장이 민선 7기 1년의 성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맛의 도시 목포 선포’와 ‘국제 슬로시티 가입’이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서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을 갖고 ‘맛’ 브랜드를 선점해 목포음식관광자원화라는 첫 발을 내딛은 이제는 ‘맛 하면 목포’를 떠올리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또 지난달 22일 이탈리아 국제 슬로시티 연맹 총회에서 목포시가 지역화·차별화·고급화·브랜드화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점 추진해 온 국제슬로시티에 국내 16번째로 가입했다.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되면 세계적 브랜드인 슬로시티 로고마크를 마케팅과 홍보 활동에 사용해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관광객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연 초 김 시장이 “올해를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맛의 도시 선포·슬로시티 가입 성과 1만2200개 일자리·24개 기업 유치 서남권 공동번영 토대 마련 박차

여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높아진 목포 브랜드가 급격한 대외 행사유치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도 속속 나타났다.

지난달 13일 전국 현직 교장 5000명이 목포를 찾은 ‘한국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하계 연수회’를 비롯해 오는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8월말 3만 명이 참석하는 ‘제1회 혁신 박물관’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레트로 열풍과 함께 근대역사문화 유산이 집중된 ‘지붕 없는 박물관’을 찾는 발걸음도 계속 이어져 주요 관광지점 상반기 관광객이 50%이상 급증했다.

1897 개항문화 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

여기에 달리도와 외달도는 여촌 뉴딜300 사업과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사업으로 명품 섬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직접 일



1일 김종식 목포시장이 민선 7기 주요 성과와 향후 시장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목포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자리 1만672명과 창업지원 16명 등 1만2266명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청 산하 전 부서별 분양책임제 도입 등 대양산단 분양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에너지 관련 4개 기업 유치 등 총 24개 기업에 투자규모도 1조 원대에 이르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

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올 연말까지 70% 분양을 달성을 위해 남은 역할을 결집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날 김 시장은 민선 7기 2년차 비전으로 ‘서남권

공동번영의 토대 마련’, ‘미래 경제성장 기반 마련’, ‘도시 가치와 품격 높이는 재생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서남권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미래 전략사업으로 대형 프로젝트 7개 분야 22개 사업과 지역연계사업 및 특화사업 50여개를 도출해 서남권 상생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미래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신항을 에너지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배후에는 에너지 기자재 부품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북항권과 대양산단, 목포항을 아우르는 수산식품 관련 기관 집적화를 통한 종합벨트화를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어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생활밀착형 복지를 더욱 구체화해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해 나가는 전략도 발표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근대역사문화 자산, 맛의 도시, 슬로시티, 가을 문화예술 축전 등 목포만이 갖는 4대 상품을 브랜드링해서 목포를 팔아먹기 위해 없이 달려왔다”면서 “민선 7기 2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 무너진 목포의 자존감을 복원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 산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윤곽...자연+축제+가족 기본 콘셉트

목포시, 주민설명회 개최  
총사업비 5043억원 예상

공원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목포시가 추진 중인 ‘산정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목포시는 지난달 26일 청호중학교 강당에서 모아엘가 등 인근 아파트 주민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측은 ‘목포의 그린오케스트라 산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연(스킵 공간)+축제(이음 공간)+가족(어울림 공간)’을 기본 콘셉트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사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36만8070㎡(78.07%)를 매입해 다양한 공원 시설을 하는 대신 비공영 시설 10만3388㎡(21.93%)에 공동주택을 지어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협상대상자측 설명 자료에 따르면 공원 시설에는 매그놀리아 숲, 산정 음악당, 125별빛 정원, 뮤직가든, 제로더스트 숲, 청해 마당 등이 조성된다. 비공영 시설에는 3개 필지로 나누어 1단지에 10개동, 2단지에 5개동, 3단지에 4개동 등 8~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동이 들어선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공원 시설 468억원, 토지 보상비 330억원 등 총



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목포시가 추진 중인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26일 개최됐다. 이날 주민들은 교통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50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옛 목포경찰서 인근은 목포에서 제일 약병 높은 교통체증 구간”이라며 교통·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와 협상대상자측은 “교육 문제는 백련초등학교를 16개 학급 증축하기 위해 목포

교육청과 협의 중이고, 교통문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 검증절차를 거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자문회의, 도시계획 심의회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위원회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 “주민추천 교육장 성공 위해 일정 권한 부여해야

이혁제 도의원 “심사위원도 지역민 의견 반영 필요” 주장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도가 성공하려면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추천하는 심사위원단도 민주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혁제 전남도의회 의원(목포4·사진)은 1일 “주민추천교육장임용제로 등용된 교육장이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하나도 없어 일반 교육장이나 선발 절차만 다를 뿐 차이가 없다”며 “예산의 일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제안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장 추천권을 지닌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은 15명 내외의 심사위원단에 의한 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구성이 필수 전제 조건이지만 그 바탕엔 전남 교육참여위원회가 깔려있다”며 교육위원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교육참여위원회는 구성부터 문제가 많았고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경정이 치열했다. 특히 순수 학부모보다 민간단체가 아닌 정치적 성향을



민 단체들이 대거 진입하려 했다. 준비위원회는 참여위원들을 추천하고 선발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단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우려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준비위원이 참여위원이 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심사하는 셀프심사라며 강하게 교육청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은 준비위원 6명 모두가 참여위원으로, 담양은 13명중 12명, 장성 8명중 7명, 곡성은 10명중 8명이 참여위원으로 선발되는 등 준비위원이 참여위원회에 포함된 비율이 22개 시·군 평균 50%를 넘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교육위원회가 전남 교육참여위원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논란과 관련 “교육감 길들이기나 소통부재가 결코 아니다”며 심사위원단의 민주적 구성과 일부 권한부여를 재차 강조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대한의사회의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기술 | 남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채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얼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